

장성군, 민선7기 공약사업 성과 ‘눈에 띄네’

7개 분야 65개 공약사업 중 29개 이미 완료...36개 계획대로 추진 중

국립심뇌혈관센터 예산 확보·하이패스IC 설치 등 굵직한 공약 해결

장성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율이 81%에 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추진 상황 분석 결과 7개 분야 65개 공약사업 중 29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다. 나머지 36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최근 이행이 완료된 사업 중에는 장성읍 버스터미널 등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 조성 이 눈길을 끈다. 인근 지역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들의 주차민원 해결에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이용차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농촌버스 노선 개편과 향릉 우시장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등이 매듭지어졌다.

KTX 장성역 정차, 전군민안전보

험 가입,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백내장 수술비 지원, 공공실버주택 안정적 입주 지원 등은 완료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상 추진 중인 공약 가운데 일찌감치 본 궤도에 오른 역점사업들이 군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공약은 지난해 말 정부예산 43억7000만원이 반영되어 센터 설립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진·출입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하이패스IC’ 설치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내려져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완공 시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장성을 중심부와 서부권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장성군민의 숙원사업인 ‘엘로우시티 스타디움(공설운동장)’ 건립은 올해 5월 무렵 준공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확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삼계면 사창리 LH 4차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북이면 LH 5차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본격화됐다. 2022년, 5차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장성군은 총 11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엘로우시티 장성의 대표 명소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약들도 지속 추진한다.

군은 2023년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황룡강 오색정원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황금빛출렁다리과 호수 우편 숲속길 조성으로 새로운 매력을 더한 장성호 수변길은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 백리길 사업’을 완성해나간다.

또한, 축령산에서는 하늘길과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등을 조성하는 명품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올해에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완료하는 데 역점을 두고, 모든 군민의 행복과 더욱 새롭고 강한 장성의 미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 성공

사업비 100억원 투입해 수산식품클러스터 탄력...내수면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화순군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지에 성공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

업에는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내수면 양식단지를 스마트 양식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스마트 양식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자들로 민간 사업자를 구성하고 지원금은 양식과 종묘 생산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 설비, 건축 공사비 등에 투입된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지에 성공해 내수면 양식단지에 입주하는 어가의 양식장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물살을 앞췌던 정남리·남정리 일대 양돈단지에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거점 단지를 조성, 수산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3만3000여㎡ 부지에 양식장 용지 1만9800여㎡를 비롯해 용수 공급 시설, 침전지, 저류지, 녹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 사무실과 판매 시설로 사용할 지원 시설도 함께 조성했다.

화순=박순철기자

“한국에너지공대법” 이달 내

반드시 통과 시켜야” 목소리 ↑

“2022년 3월 정상 개교해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설립 법안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찬용·이건철)는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이날 나주시청 정문에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소재 원천 기술 선점과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 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겼다.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로 정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핵심이나 야당 정치권의 반대로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지원위는 “국회는 입법과정의 첫 단계인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부하는 등 2월 임시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 국민과 나주인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법안 소위 안건 상정과 상임위 통과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호남을 홀대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지도부 호남방문 등의 행태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연중 추진

담양군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에 해당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다.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0만 3천 원 이하, 지역 9만 7천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 본인 부담금을 1년에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1년에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년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속 3년까지 지원한다.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대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해 전체 암에 대해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니 대상자는 국가 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야동마을 배수

설비 개선...불편 해소

구례군은 지난 4일 간전면 야동마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과 점진적 유입하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야동마을 배수 설비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로 0.24km를 신설하고 배수 설비 미설치 가구 5가구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는 등 군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05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양동지구 마을 하수도를 신설하였으나, 토지의 사용승낙 등을 받지 못하여 야동마을 일부 주택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지 못했다.

이후 군은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사업지 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야동마을 하수도 미처리 가구에 대하여 배수 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례=박진호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